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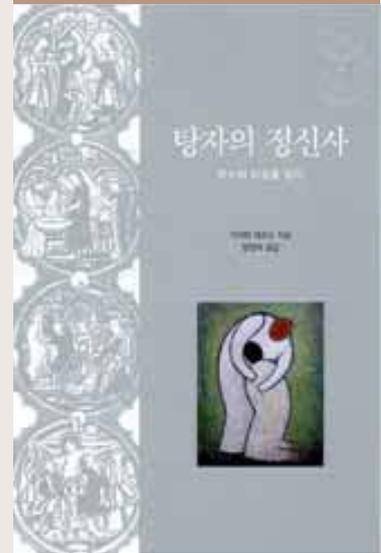
화폭에 담긴 성경이야기를 이야기하다

◎ 추태화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1.

책상에 작은 책 한 권이 놓여 있다. 단행본은 보통 신국판 크기로 두께도 좀 두툼한 편이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 변형 판형에 200페이지가 채 안 된다. 제목은 <탕자의 정신사>, 부제가 붙어 있다. “예수의 비유를 읽다” 미야타 미츠오가 저술하고, 양현혜가 번역한 책이다(홍성사, 2014).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어는 “돌아온 탕자”이다(누가복음 15장 11-32절). 성경은 신학이론을 논하는 학술서가 아니다. 또는 어떤 사건들을 단순히 전달해주는 이야기책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사에 어떻게 간섭하셨고, 이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선별된 기록이다. 성경에는 가시적인 세속사가 인간의 흥망성쇠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짐을 반복하여 역사의 주체인 듯 보인다. 그러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세속사의 배후,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는 세속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딤후 3:16, 벰후 1:21).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죄로 인하여 창조
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상처와 허물 속에서 허덕이
며 구원을 갈급해 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과
급기야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구원의 절
정을 이루게 하시는 “큰일”이 인간의 말과 글로 성육
신(incarnation)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보이지 않
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가
시적이며 유한한 인간의 도구로 표현된 것이며, 주님
의 낮아지심과도 관련된다(빌 2:8).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가 세속적인 언어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
이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비유는 그런 면에서 더욱
해석하기 어렵다. 중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
경은 문체론적 측면에서 문학적(literary)이지만(C. S.
루이스, L. 라이켄) 문학(literature)은 아니다. 이 말
은 성경이 문학적 요소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어느 작
가가 자의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문학 작품이 아니
라는 말이다. 저자는 이런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혼
신을 기울인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형상화시킨 미술
과 해석의 숲길을 걸으면서...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미술 속에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도상학적 설명이며, 제2부는 ‘돌아온 탕자’가 문화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었고 그것을 통해 인간적 사유와 고뇌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엮여져 있다. 그런데 저자가 여기에서 책을 끝냈다면 그동안 회자되어온 ‘돌아온 탕자’에 대한 또 하나의 첨언 외에 별다른 가치를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책 마지막에 저자는 이 탕자 이야기가 왜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그 빛을 발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화룡점정의 한 수를 보여준다. 복음이 현대문명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처절하게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이기주의에 일침을 가하며 구원의 징표를 주시는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의미를 드러낸다. 이 책은 ‘돌아온 탕자’ 비유가 기독교 미술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그동안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2.

1부는 한 편의 미술사이다.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기독교 미술 속에 등장하는지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부는 그런 면에서 도상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돌아온 탕자’ 비유는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종교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작가에 따라 다르게 그려졌다. 중세, 종교개혁(뒤러, 보스), 바로크(렘브란트), 그리고 현대(로댕, 바를라흐, 샤갈 등)로 이어지면서 비유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예술적 상상력의 옷을 입고 다채롭게 그려졌다. 중세시대에는 교부들의 영향을 받아 탕자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그림을 활용했는데, 당시의 그림은 상상력보다는 해석학적 결과를 반영한 사례라 하겠다. 즉, 탕자를 위해 벌이는 잔치는 성만찬, 잔치에 죽임당하는 송아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자비하신 하나님, 탕자를 위한 좋은 옷은 세례, 반지는 신앙, 구두는 모범적인 삶을 각각 우의적으로 표현했다고 본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세기말적 불안과 종말론적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뒤러는 고독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회심을 표현했고, 보스는 독특한 여행자를 중심에 두었는데 이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이단으로 박해를 받던 카타리파를 연관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다. 빛과 어둠, 원근법을 독창적으로 발휘한 렘브란트의 탕자 이야기는 내면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최고의 정신화에 의해 렘브란트는 은혜를 표현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다.”(51쪽).

현대에 와서 돌아온 탕자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로맹은 시대의 혼란 속에서 절규하는 인간을, 샤갈은 동화적이며 몽환적 상상력을 통해 행복한 에덴동산 같았던 시절을, 바를라흐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탕자를 조각함으로써 구원자 예수와 재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선교를 통해 동양으로 건너와 그곳에서 독자적인 형상을 띠게 된다. 중국 전지 미술에서 하기는 중국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서로 포옹하는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복음의 토착화를 엿보게 하였다. 일본 작가 소이치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 탕자 그림으로 감상자 스스로 심층적 차원을 체험하도록 여지를 남겨주었다.

3.

2부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문학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자는 이것을 정신사라고 명명한다. 비유는 오픈 스토리로 특정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비유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자는 “예수의 비유에서 특정한 신조나 신학 명제를 따라 그 의미를 임의로 추출하는 것은 비유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일”이라며(101쪽) 주의를 촉구한다. 비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며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비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현실, 즉 생활 속에 들어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이해하도록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숨기는 장치이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비유의 진정한 속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비유는 의외성으로 가득하여,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실존적 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불가능한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한다(102쪽).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관점은 유효하다. 그리하여 수많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비유가 이야기되는 곳, 거기에서 예수의 인격과의 만남이 생겨나고, 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건이 되는 것... 이러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하고, 그 은혜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도록 부름 받고 있는 것”이다(121쪽).

초대교회에서 중세 시대까지 탕자 비유는 다분히 신학적으로 이해되었다. 탕자는 이방인(또는 그리스도인), 큰 아들은 유대인, 아버지는 구원의 하나님, 탕자의 귀환은 회심 등으로 회화에서와 같이 수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회심(탕자의 돌아옴)과 이신칭의(아버지의 환대)의 모습에 비유되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급격히 주관적 자아의지와 결합되었다. 지드, 릴케, 카프카와 같은 작가들에 의해 탕자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모험적 인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그려졌다. 그들에게 탕자는 죄인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불안과 부조리를 누구보다 처절하게 느끼며 진실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방랑의 길을 떠나 고뇌하는 실존자이다. 바로 현대인의 초상, 실존자들의 자아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자아중심적 세계관의 맹아는 이미 종교개혁 시대부터 싹터왔다.

4.

미술과 문학을 통해 돌아온 탕자 비유에 말을 건 저자는 그동안 숨겨온 비장의 그림을 펼쳐든다. 예수께서 그림언어로 백성들에게 전하신 이야기는 그 시대와 문화에 갇힌 일회성 폐쇄 구조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한 육성으로 들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내면에서 펄떡펄떡 뛰는 심장 고동 소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준다. 둘째 아들처럼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모험을 떠나거나 갑갑한 아버지의 관습과 맹목적 가부장적 억압에서 자유 혹은 해방을 추구하던 인류는 가능성을 갖고 집을 나갔지만 오히려 불모지를 만났고, 자기 앞의 세상을 불모지로 만들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소외당한 채 절규했고,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동생을 부러워하면서도 집을 나서지도 못하고 불만이 가득한 채 아버지 집에서 자아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제 반전이 등장한다. 둘째가 돌아오는 과정은 아버지와 그 집에 대한 원초적 기억을 새롭게 한다. 아버지의 이미지도 더 이상 억압의 독재자가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 나아가 피 흘리기까지 자식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진다. 인류는 이제 하나님께로 서둘러 귀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험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를 죽이는 문명 파괴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저자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현대인, 현대문명, 인간 실존의 연관성을 발견하며 회복을 추구한다. 나아가 자신의 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극단적 일레라고 지적한다.

이로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저자의 성찰을 통해 그 지평이 다시금 열리고 있다. 미술사, 신학, 성경해석, 문학, 철학, 정신분석, 문화사 등이 융합된 인문학적 사유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다 폭넓은 의미의 세계로 초대하며, 독자로 하여금 열린 눈,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그동안의 고답적 해석에 갇힌 비유, 신학적 독단에 묻힌 비유, 시대적 함의를 무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 실존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 비유를 경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인간의 걸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인간을 향해 달려오는 하나님의 걸음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161쪽)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antelao@hanmail.net)